

» fl' ⅜ ¯·,
송마나 작가

구화산의 석월초

구화산서 김교각의 육신불 친견
이백 "봉우리가 연꽃 같다" 노래
99개 산봉우리마저 신령스럽다

九華街까지 우리를 따라온 여인
"식사만 자기 집서 해달라" 요청



그림 · 박구원

누추한 집, 실망하고 나가려는데
깨끗한 물 · 수건 가져와 메뉴 권선

여인의 추천 메뉴는 바로 '석월초'
달밤 지장보살 발자국에 피어난 꽃
바람 소슬한 달밤, 그 여인 떠올라

중국의 4대 불교 성지 가운데 하나인 구화산(九華山)은 지장보살의 영지(靈地)이다. 옛 이름은 구자산(九子山)이었으나 이백(李白)이 이곳을 유람하며 "아름다운 봉우리를 가진 산이 연꽃과 같다"는 시구를 지어 구화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우리나라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산으로 김교각(金喬覺)의 육신보전(肉身寶殿)이 있다. 신라 33대 성덕왕의 둘째 왕자인 김교각은 24살의 젊은 나이에 이곳으로 건너와 화성사(化城寺)에서 75년을 수련하고 99세에 결가부좌한 상태로 입적하였으나 시신이 부패되지 않았다. 이후 스님은 지장보살로 숭앙되어 육신보전에 그의 육신불(肉身佛)을 모셨으니 구화산 99 봉우리마저 신령스럽다.

돌계단을 따라 올라온 배경대(排經臺)에는 스님의 두 발자국이 남아 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경을 읽었으면 관세음보살도 감동하여 그 앞에 몸을 나타냈고, 봉황새와 푸른 용도 머물러 경소리를 들었을까.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해발 600m의 구화가(九華街)에서 숙소를 구하려는 아버지와 나의 뒤를 한 여인이 따라왔다. 우리가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왔다. '저러다 지치면 그만두겠지' 하는 마음으로 걸었으나 여전히 따라왔다. 결국 왜 따라오느냐고 그녀에게 물었더니 식사만 자기 집에서 하면 인근의 사찰을 성심껏 안내해 주겠다는 것이다.

대화를 나누면서 바라본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으나 깨끗한 차림의 젊은 여인인지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많은 식당을 버려두고 마당을 중심으로 옹기종기 둘러선 작은 집들 가운데에서 가장 누추한 곳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그냥 나가면 그녀가 실망할 것 같아서 약간의 돈을 놓아두고 일어서려는데 여인이 세수 대야에 물을 떠오고 비누와 깨끗한 수건을 건네주었다.

우리가 씻기를 끝내자 그녀는 따끈한 차를 하얀 수건으로 덮어진 컵에 따르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조용히 살폈다. 이윽고 우리가 권하고 싶은 음식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메뉴판을 가리켰다.

'석월초(石月草)!'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이 된다는 동충하초(冬蟲夏草)는 들어보았지만 '돌달풀'이란 처음 듣는 이름이다. 석월초는 깊은 산속의 바위틈에서 자란다. 그것도 지장보살이 밟고 다닌 발자국에서 하얀 달밤에만 자란다고 한다. 밟히고 눌려도 환하게 미소 짓는다는 석월초이다.

많은 세월이 흘렀다. 달 밝고 바람 소슬하게 부는 밤이면, 석월초 그 여인이 떠오르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社說

모바일 포교 앞서 교육부터

포교원이 신행혁신을 위한 모바일 앱 개발 등 뉴미디어 포교에 칼을 뽑았다. 바로 포교콘텐츠를 모바일로 집대성한 가칭 '붓다로살자' 앱 개발에 착수한 것이다. 올해 8월 말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신행혁신운동의 핵심인 일일수행점검 기능과 기존 포교연구자료 열람 등을 앱 하나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앱에서는 수행 진척에 따라 연꽃잎이 커지고, 나무가 자라는 등 자신의 수행정도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점도 만만치 않다. 그동안 포교원이 붓다로살자 앱에 앞서 개발한 어린이 · 중년 등 연령별 마음거울108앱의 다운로드 횟수는 각각 2000여 건에 불과했다. 그 내면을 보면 정작 마음거울108앱을 활발히 활용할 수 있는 불자들이 스마트폰 활용 자체에 미숙한 원인이 있다. 아무리 좋은 앱이라도 주 이용대상이 활용법을 모르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남의 한 사찰 관계자는 60대 이상 불자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학구열이 대단하다고 털어놓았다. 눈치가 보여 자식들에게 일일이 묻기 어려워 사찰 종무원들에게 스마트폰 활용법을 묻는다고도 했다. 고연령층 분포가 많은 불교 특성상 스마트폰 활용이 미숙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불교계에서 진행되야 함에도 그동안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은 전무했다. 포교원이 시대 흐름에 맞춰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건 수행을 점검하고, 기도와 교육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환경부터 갖춰야 한다. 포교원이 전법중심도량을 시작으로 고연령 불자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교육도 함께 병행해야 '붓다로살자' 앱을 통한 모바일 포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4.16순례길, 치유의 여정되길

인천 연안부두부터 팽목항까지 세월호 뱃길을 따라 걷는 '4.16순례길'이 첫 발을 내딛었다.

'4.16희망순례단'은 5월 15일 인천 연안부두 상트페테르부르크광장서 출발했다. 순례단은 7월 6일까지 세월호 뱃길을 따라 총 809km 순례길을 걸어 팽목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출발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세월호 유가족 등이 참여했다.

순례 동안에는 세월호 304인 이팝나무 동산이 있는 정읍 황토현전적지를 방문하는 한편, 목포신항에서 기도모임을 여는 등 곳곳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행사를 마련한다.

무엇보다 이번 순례단이 눈길을 끄는 것은 별도의 전담인력 없이 순수하게 전국서 뜻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자승 스님도 "따가운 햇살아래 고된 길이 이어지겠지만 건강하고 활기찬 순례길이 되어 우리 사회에 생명의 환한 길이 넓게 열리길 기원한다"고 순례단의 가는 길을 축원했다.

4.16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300여 명의 국민들의 목숨을 잃게 한 사건이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세월호 진상을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참사의 진상규명은 이전 정부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과는 별개로 일반 시민들이 인천서 팽목항까지 도보 순례를 하는 이유는 상생과 치유를 위함이다.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해야 이유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함이다.

순례단의 여정이 상생과 화해, 치유의 여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fl' –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리더십



지안 스님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도자라는 말은 영어의 리더(leader)이다. 민중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leadership)을 발휘할 수 있는 덕망과 남보다 뛰어난 통찰력이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친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도자는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형 인물에 해당한다. 이른바 전문화 시대의 이념적 파벌주위에 빠지면 그 시대 사회를 위한 전체적인 통찰력이 결핍되기가 일쑤다.

보다 넓고 깊은 안목으로 소아(小我)를 넘어선 대아(大我)의 정신으로 인류의 보편의 가치와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는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이 그 사회 그 나라의 지도자가 할 일이다.

부처님은 대중을 이끄는 방편으로 네 가지 덕목(德目)을 일러주셨다. '첫째 사람들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을 잘 파악하여 은혜를 베풀고(布施), 둘째 합당하고 사리에 맞으며 부드럽고 고운 말을 쓰며(愛語), 셋째 스스로의 선행으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며(利行), 넷째 사람들의 근성(根性)을 헤아려 방편을 달리 행하고, 모든 일을 같이 하도록 노력하고 배려하는 것(同事).' 곧 사섭법(四攝法)은 지도자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실천 사항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만일 과거, 현재, 미래의 사문이나 바라문이 사섭법으로 대중을 이끈다면, 어떤 대중도 이끌지 못할 대중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중아함경〉

지도자의 말 한 마디는 솔직담백하여 민중이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정치라는 것이 바르게 정직하게 다스린다는 뜻이 아닌가.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지도자는 큰 뜻을 품고 민중을 선도하는 사람이다. 민중을 분파적 갈래로 찢어 놓아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전체를 조화통일 시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총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는 폭넓은 관찰을 하여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국지적 선택의 영역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전체를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

어느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가 되어 다양한 민초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것은 집단 내부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른바 연기법칙에 의해서 서로가 존재하며 변증법적인 논리에 의하여 발전하는 것이다. 사상적 이데올로기에 침잠하기 이전에 화쟁의 통로가 어디에 있는 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를 통합하는 중재자가 되려면 나 자신이 극단적 변견(邊見)에 벗어나야 한다. 중도(中道)로써 양변(兩邊)을 소통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서 정치적 탕평책이 나올 수도 있다.

목하 현재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은 '중도적 개혁'이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말들이, 좌파니 우파니 하는 말들이 이미 진부해졌고 식상해지기 시작했다. 여기에도 쌍차쌍조(雙遮雙照)의 중도통합논리가 적용되어 양비론(兩非論) 아닌 새로운 정치적 모럴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